

‘학동·화정참사’ 재발 막는다

광주시, 부실공사 신고 대상 확대 익명신고·절차 간소화 조례 개정 포상금 범위 민간 20억 이상 확대

광주시가 지난해 학동 재개발 지역 건물 붕괴 참사에 이어 올해 HDC 화정아파트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공사 신고 대상을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19일 부실 건설공사 신고 대상을 지

역 내 모든 건설공사 현장으로 확대하고, 익명성 보장과 포상금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광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우선, 신고 적용대상을 광주시(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 또는 시 출자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공사업으로 국한됐던 기존 조항을 수정해 ‘광주지역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했다. 또 건설안전 법규와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기술인의 역량 강화 교육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공사 품질 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또한 익명신고가 가능토

록 했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도 ‘광주시 발주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관공공사 1억원 이상, 민간공사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연대보증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방계약법에서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한 데 발맞춰 조례상 연대보증인 문구도 삭제했다.

한편 광주시는 화정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지난 1월24일 ‘부실공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월24일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민간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이행실태 안전감찰도 실시했다. /김용현 기자



회경루 공사현장 점검 광주 남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는 19일 광주공원에 증건하고 있는 전라도 천년기념 회경루 공사 현장을 방문,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붕괴 등 위험사항을 점검하고 대비책을 논의했다. /남구의회 제공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정상화 박차

올해 270일 운영 목표 순항 하반기 전국대회 16회 예정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정상화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제자동차경주장의 올해 목표 운영일수를 270일로 잡고, 국내 최대 스피드축제인 ‘전남GT’, 국내 유일 프로대회인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등을 통한 관람객 유치, 자동차 복합문화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제자동차경주장은 세계 41개 국제공인 1

등급 경주장(서킷) 중 하나로, 국내에선 유일하다.

월드컵경기장, 야구장 등 1만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국내 공공체육시설은 사후 활용의 어려움으로 대부분 적자 운영되고 있지만, 국제자동차경주장은 자동차 및 모터스포츠 관련 용도로 연간 34억여원의 수입을 올려 운영수지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지난 2020년 60일을 휴관하고 2021년 38일 임대계약을 취소하는 등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운영일수를 축소했다.

이로 인해 코로나 이전 평균 280일었던 경주장 운영일수가 241일까지 축소되고, 12만~14

만명이던 방문객도 4만~5만명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올 들어 일상회복 시대를 맞으면서 경주장 운영이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 이전의 96%인 총 270일 운영일수를 목표로 상반기는 128일이 가동됐다.

전국 모터스포츠 대회의 62%가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개최 예정으로, 상반기에 8회 열렸고, 하반기에 16회가 예정됐다.

오는 10월에는 국내 최대 규모 스피드 축제인 ‘전남GT’가 전남도 주최로 열린다. 국내 유일 프로대회인 ‘슈퍼레이스 챔피언십’부터 아마추어의 입문기회를 제공하는 ‘KIC-CUP 투어링카’까지 모터스포츠 전반에 걸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선우 기자

전남도,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첫 심사

실무위에 163건 상정키로

전남도가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에 대한 첫 심사를 하고, 실무위원회 상정 심사건을 확정했다.

전남도는 19일 “여순사건 실무위 소위원회를 전날 도청에서 개최하고, 여순사건 희생자·유족으로 신고한 166건에 대해 사실조사 사전 심사를 실시해 163건을 여순사건 실무위원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건은 증거자료를 보완하거나 추가적인 법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돼 상정을 보류했다.

심사에는 여순사건 전문가, 시민단체, 대학교수, 전남도교육청 관계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첫 심사는 그동안 전남도와 시·군에서 접수한 희생자·유족 신고 2,200여건 중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건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위원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미 진실규명을 받고 ‘여순사건 특별법상’ 희생자·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고한

143건을 비롯해, 경찰서 보안기록·군법회의 판결문 등 증거자료가 있는 19건, ‘증명자료가 없어 보증서를 제출한 4건’ 등 총 166건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신고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보증인 2명의 진술이 첨부된 건에 대해서는 여순사건 관련성과 보증인 진술의 신뢰성 등에 대해 위원들 간 열띤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명예회복위원회는 소위원회를 통과한 건에 대해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9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게 된다.

지난 15일 현재까지 접수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는 2,317건(진상규명 101건·희생자·유족 2216건)이다.

여순사건 피해신고는 2023년 1월 20일까지, 진상규명 신고는 시·도와 시·군·구, 희생자·유족 신고는 전남도(시·군·읍·면·동 포함)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서울에 소재한 여순사건 명예회복위원회 지원단에도 신고·접수할 수 있다. /오선우 기자

광주시, 올 상반기 도로변형 1만3천곳 보수

광주시종합건설분부는 올해 상반기 도로패임 등 변형 구간 1만3,000곳을 집중 보수했다.

19일 광주시종합건설분부에 따르면 시내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 18곳 노후 파손 구간을 재포장(18.9km·18만6,000㎡)했다.

상반기에만 46억원을 신속 집행, 도로파손에 따른 차량사고 발생이 지난해보다 97% 감소(6월 말 현재 51건)했다. 지난해의 경우 도로파손으로 1,500여 건의 각종 차량 파손 사고가 발생했다. /조기철 기자

올해 하반기에는 GPS 도로현황 관리를 이용, 도로요철(소성변형)발생 구간을 정비한다. 소성변형은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차량바퀴의 주행방향으로 길게 굴이 패어 요철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여름철 아스팔트 포장의 온도 상승과 중량이 큰 차량의 운행 증가가 원인이다.

광주시 종합건설분부는 폭염기간 중 시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요철발생 구간 대안대로 등 31곳 3만6,100㎡를 평탄화 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조기철 기자

의료수요 갈수록 폭증하는데...
▶면에서 계속

높은 응급환자 전원율과 타 시도 유출률은 도민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약재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최근 5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전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말 기준 전남에서 심근경색·뇌졸중·중증외상 등 3대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율은 9.7%(541명)로 비율로는 전국(4.5%)의 두 배를 상회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63명은 응급수술 및 처치불가 사유로 옮겨졌다.

상급 종합병원이 없고 의사수도 절대 부족하다보니 연간 80만명이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타 시도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유출 비용만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열악한 의료 인프라 탓에 중증환자의 약 80%가 타 시도로 이송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전남의 1인당 의료비도 전국 최고인 241만 9,000원으로 최저인 경기 157만8,000원의 1.5배를 상회한다. 여기에 교통비와 체류비, 이용시간 등까지 감안하면 전남도민은 이중·삼중의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다. 순천대가 서울대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에 의해 지난해 6월 발표한 의대설립 타당성 연구에서도 전남은 최악의 의료소의 지역으로 확인됐다. 전남은 일반의 비중은 전국 1위, 종합병원 전문의 비중은 전국 최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응급의료비 부담해 뇌졸중, 심근경색, 폐암, 간암 등의 필수 중증의료 분야가 매우 취약했다. 전국 최하위의 중환자실 비율은 수술이 많은 필수 및 응급의료 분야에서 타지역으로의 환자 유출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전남도는 시급한 의료인력 확보와 의과대학 설립 없이는 지역의 높은 의료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설립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의과대학을 먼저 신설하지 않고 기존 의대 정원만 증원한다면 의대가 없는 전남은 타 지역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 개선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대선 때부터 강조해 왔던 의대 설립을 하루빨리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공고·영양·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11000@hanmail.net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종합시사매거진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본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

전남매일 연중 일자리 창출 캠페인

**여러분의 취업성공,
활기찬 경제도시
남구가 함께합니다**

남구 일자리박람회 607-2672

취업상담 및 알선 607-2675

남구 공공일자리 607-2673

남구 취업지원센터

7월 11일은 인구의 날

**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하는 아빠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불균형 개선
전라남도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전라남도
인구보건복지협의회 광주전남지회
가 함께 합니다

NAVER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회환 3단
근조화환 3단

정품 회환 75,000원 재사용 회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동림 박배성 302-0316-649511